

동기에 미치는 가능적-자기의 영향 —공변량구조 모형의 적용—

장 성 숙

The Ohio State University

자기개념과 동기 사이를 이어주는 데 필수적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가능적-자기(possible selves) 개념은 목표, 포부, 동기, 두려움에 대한 인지적 표명으로서 Markus와 Nurius(1986)에 의해 발전되었다. 가능적-자기가 지닌 의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능적-자기가 미래행동을 위한 유인자로 기능한다는 것이고 둘째, 가능적-자기는 자신에 대한 현재의 견해에 평가적이고 해석적인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적-자기가 정서, 자존감, 자아-효능감, 자아-통제, 그리고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공변량구조 모형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적-자기 개념이 독립적인 구조로 확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3개의 가정된 모델을 검증했다. 첫째 모델은 가능적-자기와 현재-자기를 복합시킨 개념구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모델은 비교를 위하여 검증된 것으로 가능적-자만의 개념구성을 둘째 모델로, 현재-자기 개념구성을 그 세 번째 모델로 설정해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모델은 썩 좋은 적합 정도를 보여주지 못했고 셋째 모델만이 좋은 적합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하여 가능적-자기 개념은 독립적인 개념구성으로 확립되기 위해서 아직 더 정교화 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있다.

미국의 초기 심리학에서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자기-개념은 한 때 “정신적” 구조라 하여 제외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근래에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는 인지 및 동기의 속성과 관련하여 사회 및 성격심리 분야에서 다시 활발히 촉진되었다.

1970년대 초기에 사회심리 분야에서 동기와 인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활발했다. 그러나 인지과학의 출범과 관련한 여세로 인지가 강조됨에 따라 동기 및 정서는 이차적 또는 부차적 산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한동안 지속되는 동안 Bower(1981), Norman(1980), 그리고 Simon(1982)등과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정서와 무관한 사고(thought)연구에 대한 한계점들을 제시하자 동기나 정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Zajonc(1980, 1984)에 의해 인지에 영향 미치는 다른 실체(entity)가 적극적으로 상정되는가 하면, 마침내 동기와 인지는 별개의 실체들이라기 보다 서로가 융합되어 있는 공동작용(synergic)의 특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최근 인지와 동기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사회 및 응용심리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며 주로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또는 복잡한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들이다(Hoffman, 1986; Sorrentino & Higgins, 1986). 예를 들면, 주관적인 상태가 정보처리에 어떻게 영향미치는가(Wyer, 1986), 태도에 대한 감지를 가능하게 하는 동기구조가 어떻게 인지를

변화시키는가(Ross & Conway, 1986), 사회비교에 대한 인지적 양상은 동기상태에 의존하는가(Tesser, 1986), 그리고 동기적 정향(orientation)은 인지의 속성에 따른다는 연구 등이 있다(Fiske & Ponelchak).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은 목표와 동기에 대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동기에 대한 심적 일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Higgins, Strauman, & Klein, 1986).

이러한 전반적 배경아래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도 나름대로 발전해오다 앞서 말한 조류의 영향을 받기에 이른다. 자기-개념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크게 4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자기-지각 이론(Bem, 1967, 1972; Heider, 1958), 객관적 자기-의식 이론(Duvall & Wicklund, 1972; Ickes, Wicklund, & Ferris, 1973; Wicklund, 1975; 1979), 자기-규제 이론(Bandura, 1977, 1978; Caver & Schier, 1982; Snyder, 1975, 1979), 그리고 지식구조 체계로서의 이론(Breckler & Greenwald, 1986; Cantor, Markus, Neidenthal, & Nurius, 1986; Greenwald, 1980, 1984, Markus, 1977, 1983).

Markus와 Nurius(1986)에 의해 소개된 가능성적-자기(possible selves)개념은 자기를 지식구조 체계로 보는 관점에서 발달된 것으로 자기-지식의 한 중요한 분야이다. 가능성적-자기는 특히 자기-개념이 어떻게 동기 과정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유효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미래지향적 내지는 동기적 속성을 지닌 가능성적-자기 개념을 Markus와 Nurius는 인지구조로 간주되는 자기-개념(self-concept)내에 포함시켰다. 가능성적-자기는 자신의 잠재력과 미래에 관련하여 구체적 희망, 두려움, 공상 등을 나타내므로서 목표, 바램, 및 동기에 대한 인지적 표명(manifestation)으로 이해된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재-자기 와도 다르고 동기화가 안된 단순한 상상의 상태와도 다른 가능성적-자기는 인지적 특성을 지닌 자기-개념과 동기를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는데 이 개념구성(construct)를 규명하기 위해 Markus와 Nurius는 먼저 척도를 개발했다. 문항은 150개의 가능성에 대한 형용사들로 6개의 범주로 묶여진다: (a) 일반 묘사어, (b) 신체 묘사어, (c) 생활양식 묘사어, (d) 일반능력 묘사어, (e) 직업 묘사어, 그리고 (f) 타인의 평가에 관

련한 묘사어. 각 문항은 현재상태를 얼마나 반영하는가 하고 질문된 다음, 미래지향적 가능성적-자기에 관련하여 다시 아래와 같은 세가지 차원에서 질문된다: (a) 기대차원(like-to-be), (b) 가능성의 차원(probable), 그리고 (c) 중요정도의 차원(important).

가능성-자기를 한 하위개념으로 현재지향적 기존의 자기-개념에 포함시켜 확장하는 근본가정은 확장된 자기-개념이 개인의 정서 및 동기상태를 현재-자기(current-self)보다 더 잘 설명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첫째, 가능성적-자기는 자신에 대한 현재의 견해에 평가적이고 해석적인 문맥을 제공하기 때문이고 둘째, 미래행동에 대하여 유인가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선 Markus와 Nurius는 1986년도 논문에서 첫번째 명제의 타당성과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했다.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에 의하면 가능한-자기를 이루는 세가지 차원의 구성요소들은 개인의 정서, 자존감, 통제력을 예언하는데 의의있게 기여한다고 한다. 가능성적-자기가 유인가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하지 않았으나 설득력 있는 진술로 가능성적-자기가 목표상태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로(pathway)에, 그리고 그 목표상태와 연합된 가치 및 정서에 구체적 인지형태를 제공하므로서 동기를 표상한다고 했다.

가능성-자기 개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가능성적-자기가 과연 독립된 개념구성으로 규명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한 시도로서 우선 가능성적-자기가 현재-자기 개념과 어느 정도 변별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른 몇몇 개념들과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가설의 내용을 포함한 모델을 설정해 그 모델의 적합도를 측정한다: (a) Markus와 Nurius가 보고한 것 처럼, 현재-자기에 가능성적-자기를 첨가시켜 확장한 자기-개념이 정서, 자존감, 그리고 자기-통제를 예언하는데 과연 기여하는가, (b) 동기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가능성적-자기와 유사 개념인 자기-효능감(Bandura, 1977, 1982)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c) 확장된 자기-개념이 기존의 자기-개념(현재-자기)보다 개인의 동기상태를 더 잘 설명하는가, 그리고 (d) 종속변인들인 정서,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아-통제, 그리고 동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구조 모형(CSM: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했다. 조작과 통제를 통해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밝혀내기 어려운 행동 및 사회과학분야에서 CSM은 매우 강력한 연구방법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CSM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가정해 그 모델의 진위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또는 자료에 대한 탐색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Bentler, 1980; James, Mulaik, & Brett, 1982; Long, 1983).

CSM의 분석에 의해 산출되는 최대의 정보 값은 적합측정치(fit measures)인데 이것으로 가정된 모델이 실제 수집된 자료에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의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즉, 적합측정치란 가정된 모델이 표집이 축출된 모집단에서 지닐 수 있는 적합정도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것을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모델의 좋고 나쁜 적합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수로는 χ^2 , ρ , Δ , 그리고 RMSR(root mean of square residual)등이 있다. 이러한 적합측정치 이외에 CSM 분석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정보는 모델 내에서 화살표로 표시되는 변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값인데 이것은 모델의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가정된 모델이 검증된다. 제1 모델은 본 연구의 가장 주된 것으로 가능적-자기와 현재-자기를 복합시켜 독립변인으로 하는 연합모델이다. 이 모델은 앞에서 진술한 연구질문의 내용을 반영하는데 그림 1에 맞추어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능적-자기(PS)와 현재-자기(NOW)는 상호관계성을 갖는 상태에서 독립내재변인으로 설정된다. (2) 이 두 독립변인은 정서(AFF), 자존심(SES), 자기-유효감

(EFF), 그리고 자아-통제(PC)에게 각각 영향을 미친다. (3) 정서는 자존감에, 자존감은 자기-유효감에, 그리고 자기-유효감은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친다. (4) 종속내재변인인 정서, 자존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아-통제는 다시 최종 종속내재변인인 동기(MOT)에 영향을 미친다. (5) 5개의 독립내재변인인 가능적-자기와 현재-자기는 매개 종속내재변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동기에 각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을 지닌 구조모델에서 각 내재변인들(원으로 표시)은 측정변인(직사각형으로 표시)으로 1개 내지 5개의 변인을 지닌다.

피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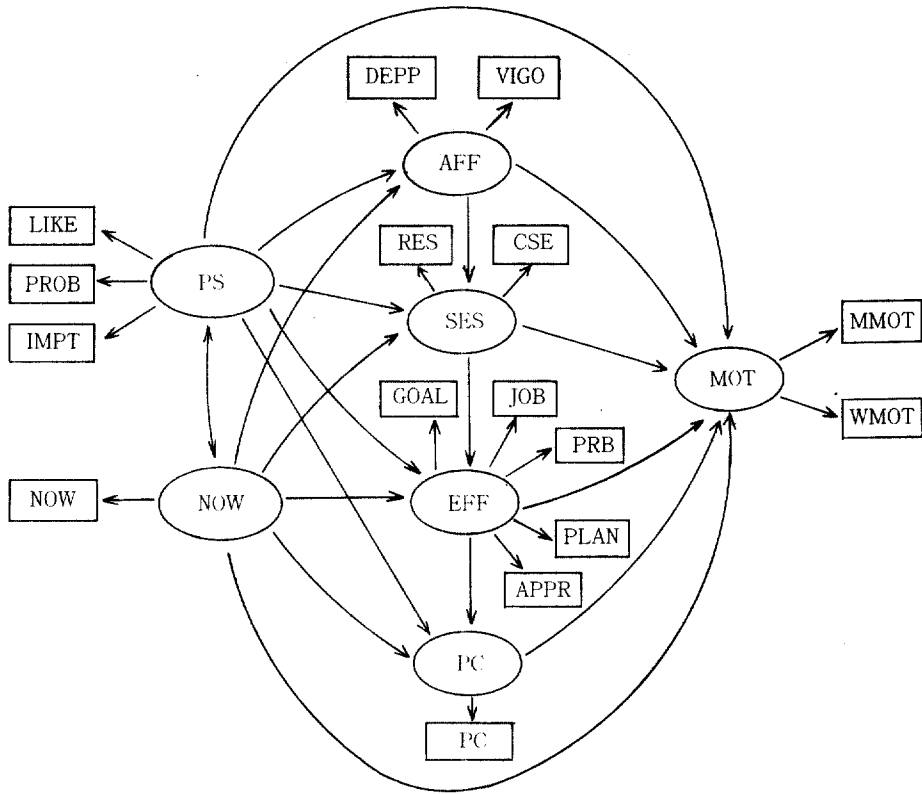
피험자로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Ohio주립대학교 학부학생들이 선발되었다. 이 대학교의 경우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학점과 관련된 제도에 따라 최소한 5시간 이상 심리학과의 연구활동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피험자는 1988년도 봄학기에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각자 다양한 연구활동들에 대한 소개광고를 참조한 후 스스로 선택해 본 연구에 참여했는데 모두 403명이다. 절반에 해당되는 200명은 가정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에 임했고 나머지 203명은 교차-타당도를 얻기 위한 재분석에 활용되었다. 보다 자세한 피험자의 특성에 대한 것은 아래의 표 1에 기술되어있다.

표 1. 피험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

| 집 단 | 성 | 학 | 년 | 나 | 이 |
|--------------------|---------|---|-------|-------|-------|
| 1 차피험자 (N=200) | 남 : 73 | 1 | : 130 | 17-20 | : 155 |
| | 여 : 127 | 2 | : 41 | 21-24 | : 31 |
| | 여 : 127 | 3 | : 19 | 25-28 | : 8 |
| | | 4 | : 10 | 20-40 | : 6 |
| 교차타당피험자 (N=203) | 남 : 106 | 1 | : 137 | 17-20 | : 175 |
| | | 2 | : 43 | 21-24 | : 22 |
| | 여 : 97 | 3 | : 18 | 25-28 | : 3 |
| | | 4 | : 5 | 29-40 | : 3 |

절 차

연구내용을 간략히 기술한 광고를 특정 벽보에 붙여



내재변인(○으로 표시)에 대한 약호

- PS=가능적-자기
- NOW=현재-자기
- AFF=정서
- SES=자존감
- EFF=자기-유효감
- PC=자아-통제
- MOT=동기

측정변인(□으로 표시)에 대한 약호

- LIKE=되고 싶은 자기(like-to-be selves)
- PROB=될 가능성의 자기(probale selves)
- IMPT=비중이 두어지는 자기(important selves)
- DEPP=우울
- VIGO=활기
- RSE=Rosenberg의 자존감
- CSE=Coopersmith의 자존감
- GOAL=목표선정
- JOB=직업정보
- PRB=분재해결
- PLAN=계획
- APPR=자아-승인
- PC=자아-통제
- MMOT=통달
- WMOT=일-정향(work-orientation)

그림 1. 제1모델에 대한 통로(pathway)도해 : 연합모델

참가할 학생들의 서명을 얻는다. 지정된 장소에 학생들이 도착하는 대로 한 다발로 묶여진 질문지 검사를 배부하여 시작하도록 한다. 이 다발속에는 16개의 측정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측정변인들은 사실상 7개의 개별적인 검사도구들내에 포함되어있다. 검사의 순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자기—개념과 최종 종속변인인 동기 사이에 정서, 자존감, 자기—유효감, 그리고 자아—통제 변인들의 순서를 다양하게 바꾸어 제시한다. 검사의 총 측정시간은 30~40분 정도이다.

검사도구

모델내에 포함되어 있는 7개의 내재변인을 재기위해 7개 종류의 척도에서 16개의 측정변인이 채택되었다. 사용된 척도와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1) Self-description and Possible Selves 척도는 현재—자기를 재는 1개와 가능성—자기를 재는 3개의 측정변인으로 쓰여진다. (2) Profile of Mood States 척도에서는 우울함과 활기를 재는 2개의 측정변인이 선정된다. (3) Rosenberg's Self-Esteem 척도는 자존감(RSE)을 재는 1개의 측정변인으로 사용된다. (4)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는 자존감을 재는 또 다른 측정변인(CSE)으로 사용된다. (5) Self-Efficacy Questionnaire는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 계획, 그리고 자아—승인을 재는 5개의 측정변인들로 쓰여진다. (6) Reid-Ware's Self-Control 척도에서는 자아—통제를 재는 한 요인만이 측정변인으로 채택된다. 마지막으로 (7) Achievement Motivation 척도에서는 통달과 일—정향을 재는 2개의 측정변인이 선정된다. 이렇게 모두 7개의 검사도구들이 사용되는데 (1) 번의 경우에만 아직 확립된 척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나머지 척도들 내지 측정변인들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는 .66-.88 범위에 해당된다.

자료분석

가정된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LISREL VI 컴퓨터 프로그램(Joreskog & Sorbom, 1984)이 사용되었다. 모델의 적합정도(goodness of fit)와 각 매개변수들의 추정치(the value of path coefficients)가 얻어지는 이 분석을 위한 각 단계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재변

인을 재기 위한 측정모델이 규정된다. (2) 구조모델과 측정모델을 나타내는 일련의 등식과 매개변수의 행렬을 만든다. (3) LISREL이 제공하는 적합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가정된 모델의 공변량구조를 관찰된 공변량행렬과 비교한다. (4) 이론적으로 정당화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합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정탐색(specification search) 과정을 통해 통로(path)에 대한 수정을 매번 한번씩 가한다. 마지막으로 (6) 수정을 가한 최종모델이 얻어지면 그것을 다시 교차—타당도 검사를 거쳐 확인한다.

결 과

제 1 모델 : 연합모델

모델의 분석결과 수정을 제시하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에 의거해 현재—자기에서 자존감으로 가는 통로를 생략하고 다시 검증을 했다. 이 수정에 의해 적합정도가 증진되지는 않았으나 간결함은 증진되어 수정이 가해진 모델을 최종 모델로 간주하고 그것에 대한 교차—타당도를 구했다.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제시된 지수들 중 ρ 지수(.90이상)이 요구됨) 하나만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그리하여 가정된 연합모델은 기대한 만큼 우수한 모델로 판명되지는 않고 그저 주변적(marginal)인 정도다(그림 2).

표 2. 연합모델로 적합정도

| 모 델 | $\chi^2(df)$ | ρ | Δ | RMSR |
|-------|--------------|--------|----------|------|
| 최초모델 | 192.97(88) | .095 | .882 | .064 |
| 수정모델 | 193.01(89) | .907 | .882 | .065 |
| 교차타당도 | 184.62(89) | .915 | .887 | .076 |

제 2 모델 : 현재—자기모델

현재—자기모델에서도 자아—통제에서 동기로 이어지는 통로를 생략하는 수정이 한번 가해졌다. 표 3에 모델의 적합정도가 제시되어 있듯이 현재—자기모델은 ρ (.90 이상), Δ (.90 이상), RMSR (.05 이하)에서 이상적으로 하는 기준치를 모두 넘어섰으므로 좋은 모델로 드러났다. 즉 현재—자기모델은 실제상태(real world)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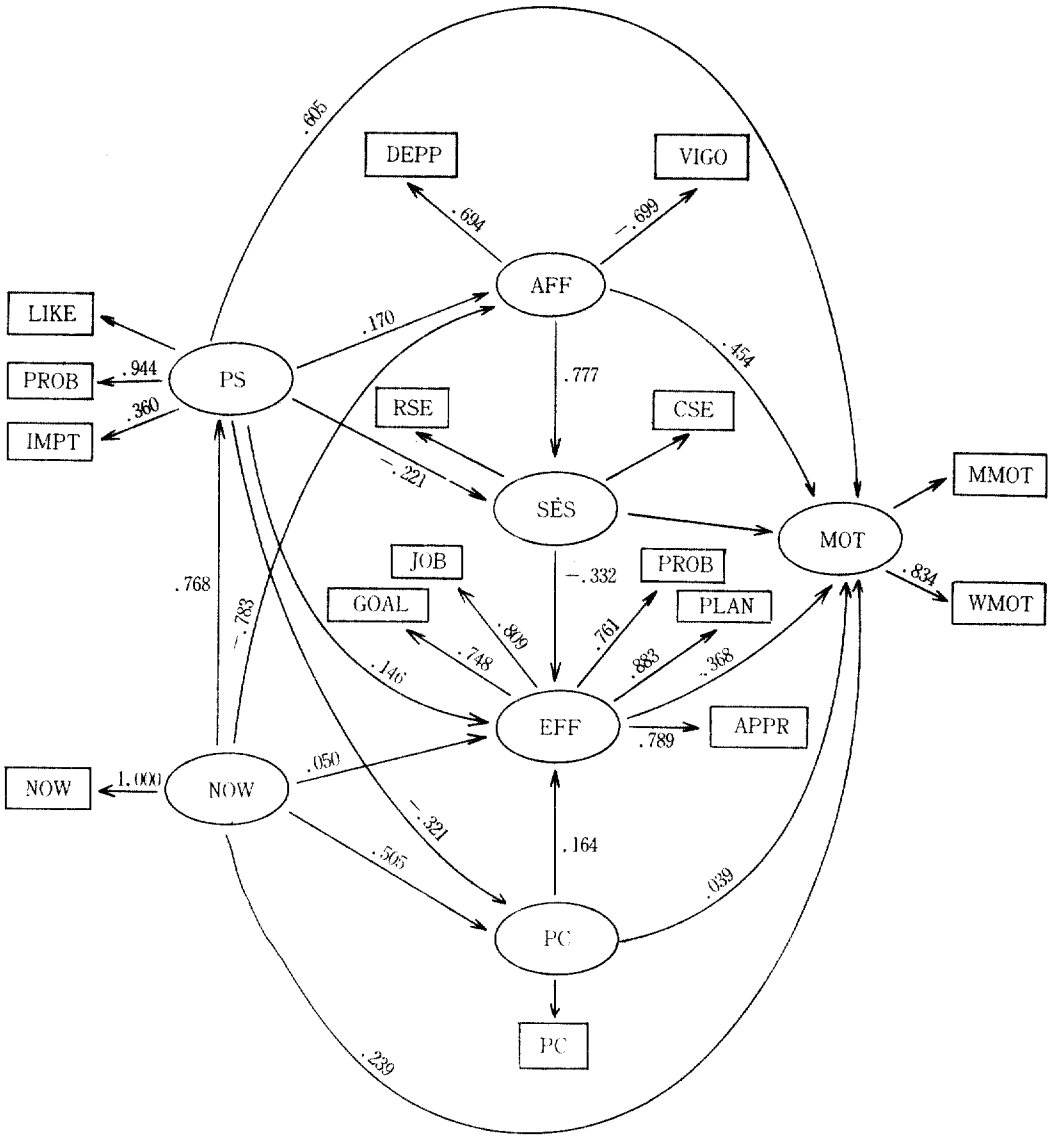


그림 2. 표준화된 LISREL 추정치 및 최종 연합 모델

표 3. 현재 자기모델의 적합정도

| 모 델 | χ^2 (df) | ρ | Δ | RMSR |
|--------|---------------|--------|----------|------|
| 최초모델 | 93.24 (55) | .953 | .924 | .041 |
| 수정모델 | 93.31 (56) | .955 | .924 | .040 |
| 교차-타당도 | 106.36 (56) | .939 | .914 | .067 |

제3모델: 가능적-자기모델

가능적-자기모델에서는 특정탐색의 수정지수에 따라 두번의 수정이 각각 이루어졌다. 1차 수정에서는 자존감에서 자아-통제로 이어지는 통로가 더 첨가되었고 2차 수정에서는 자아-통제에서 동기로 이어지는 통로가 생략되었다. 표 4에서 보듯이 가능적-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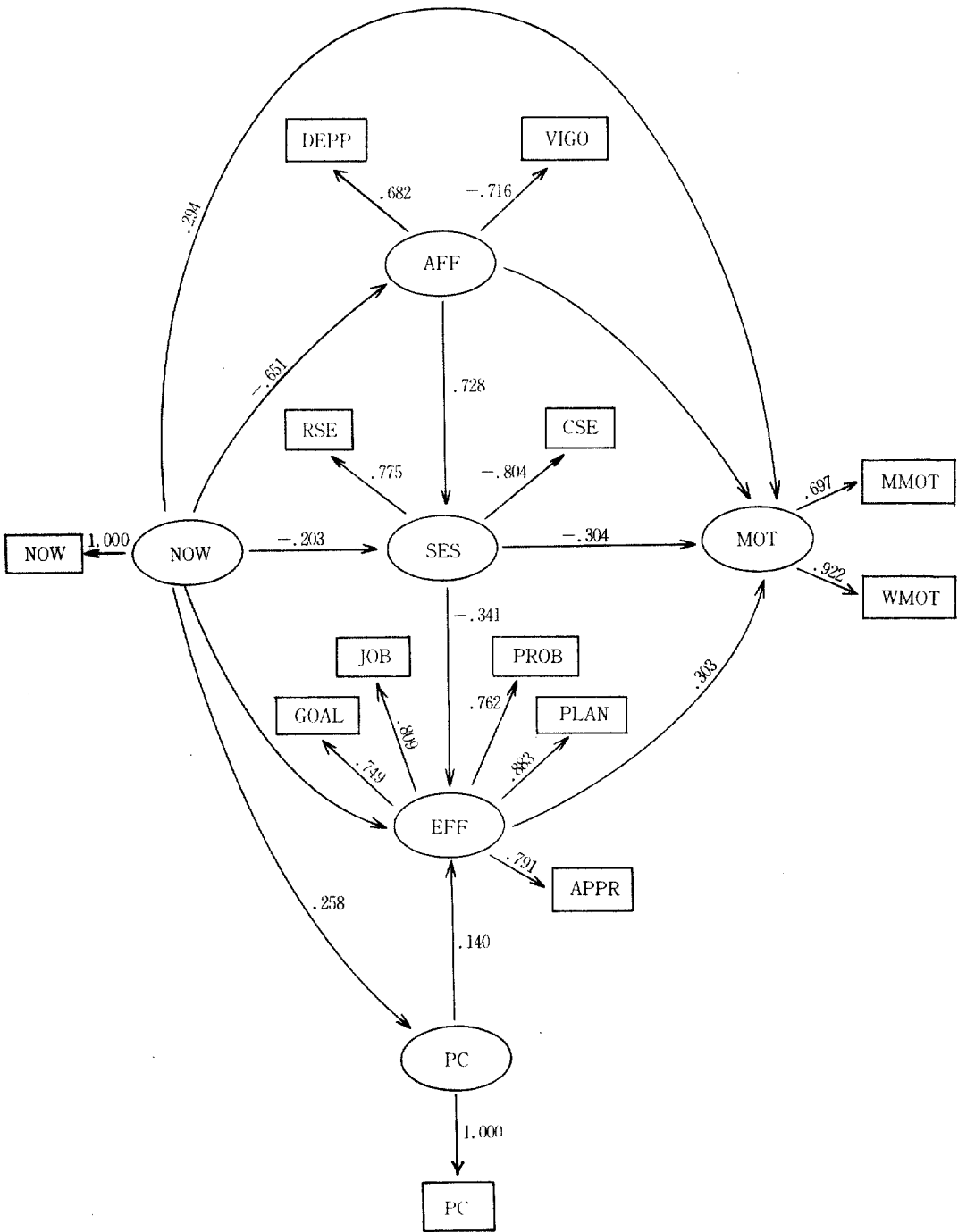


그림 3. 표준화된 LISREL 추정치 및 최종 현재-자기 모델

모델은 ρ 수치 만이 기준치를 넘고 나머지는 기준치에 미흡한 주변적인 모델로 판명되었다(그림 4).

표 4. 가능적 자기모델의 적합정도

| 모 델 | χ^2 (df) | ρ | Δ | RMSR |
|-------|---------------|--------|----------|------|
| 최초모델 | 178.01(79) | .898 | .873 | .087 |
| 1 차수정 | 157.66(78) | .917 | .887 | .073 |
| 2 차수정 | 157.84(79) | .917 | .887 | .073 |
| 교차타당도 | 156.71(79) | .920 | .889 | .072 |

SMC에 근거한 정보

공변량구조 모형은 모델의 적합정도 뿐만 아니라 각 변인들에 대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제공한다. 앞에 제시된 3개의 모델들은 사실 서로 다른 구조들 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지는 않고 다만 참고적인 수준에서의 비교가 가능할 뿐이다. 이에 비해 SMC에 의해서는 기술적인(descriptive) 차원에서의 직접비교가 가능하다.

LISREL은 각 측정변인들에 대한 SMC와 구조등식에 대한 SMC를 제공한다. 구조등식에 대한 SMC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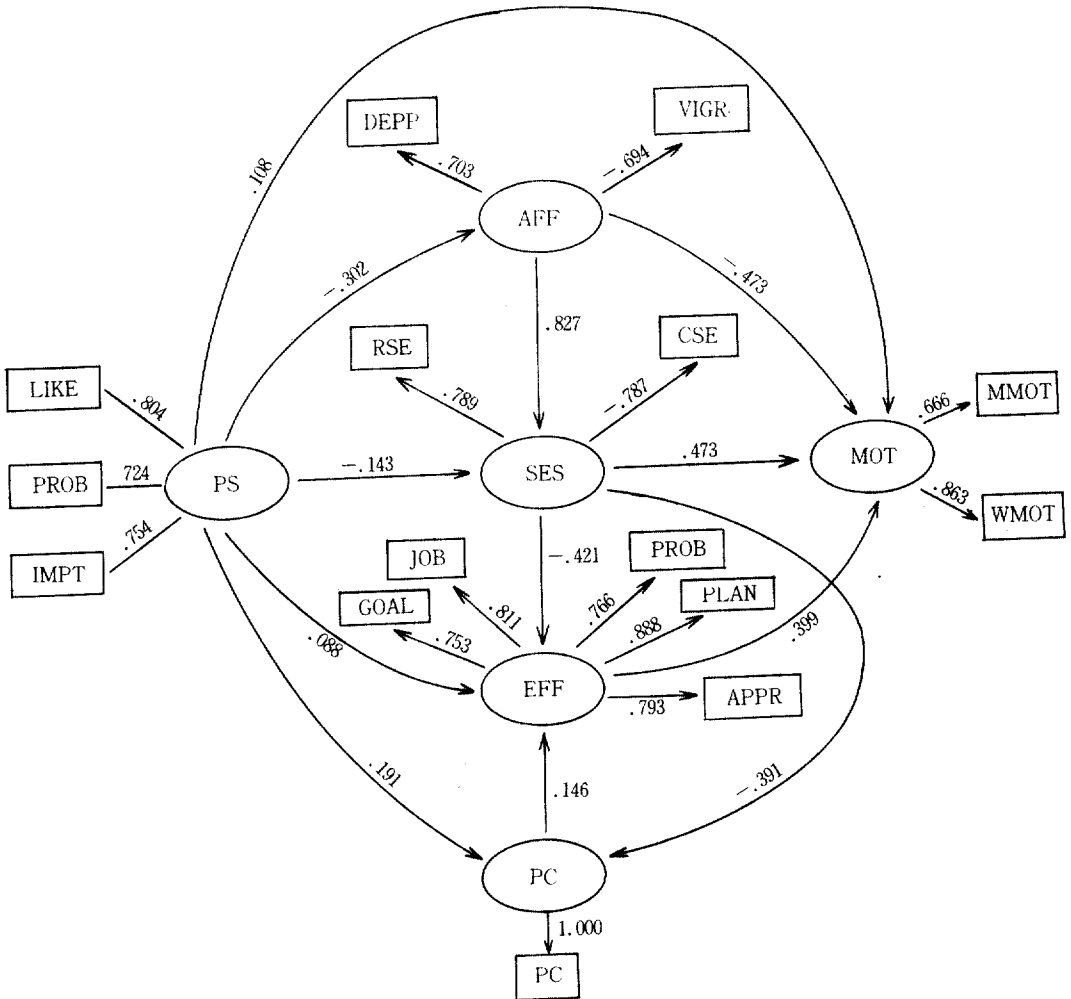


그림 4. 표준화된 LISREL추정치 및 최종 가능적-자기 모델

표 5. 구조동식에 대한 SMC

| 모 델 | AFF | SES | EFF | PC | MOT |
|----------|------|------|------|------|------|
| 연합모델 | .427 | .803 | .299 | .116 | .375 |
| 현재 자기모델 | .419 | .780 | .280 | .065 | .371 |
| 가능적 자기모델 | .098 | .777 | .278 | .125 | .340 |

내재변인이 다른 내재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표 5는 세 모델에서 각 구조동식들에 대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SMC의 범위는 .20~.99인데 (Fassinger, 1987, 1987) 자존감(SMC)은 약 .80정도 높은 비율의 량이 다른 내재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반면 자아—통제는 그 값이 매우 저조하다. 그리하여 자존감은 각 모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재요 인인데 비하여 자아—통제는 그런하지 못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5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가능적—자기 모델에서 정서(AFF)가 설명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즉 가능적—자기 만으로는 정서를 예측하 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연합모델에 대한 분석에서 그 모델의 적합정도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고 그저 주변적인 것에 불과했다. 엄격한 의미에서, 추가 분석 된 두 모델은 사실상 연합모델과는 서로의 구조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개략적인 수준에서 참고삼을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두 모델에 대한 분석이 첨가되었다.

가능적—자기를 제외하고 현재—자기만을 독립변 인으로 설정한 현재—자기 모델에서는 그 적합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가능적—자 기 개념영역이 첨가 될 때 한 개인의 정서 및 동기상태 를 현재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재—자기가 하는 것 보 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Markus와 Nurius의 주장은 공변량구조 모형을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가능적—자기와 현재—자 기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 는데 이 의문을 위해 제3모델로서 가능적—자기만을

독립변인으로 한 가능적—자기모델에 대한 분석을 시 도했다. 분석결과, 가능적—자기모델의 적합정도는 현재—자기모델에 미치지 못하고 단지 주변적인 정도 에 그쳤다. 이러한 사실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는 점은 가능적—자기 개념이 현재—자기 개념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아직은 충분히 독립적인 개념구 성으로 확립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가능적—자기 개념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새롭게 소 개된 이 개념이 하나의 독립된 개념구성으로 확립되기 위해 우선 다른 유사 개념들과 변별되어야 한 막중 한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변량구조 모형 분석에서는 가능적—자기가 첨가된 연합모델이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변인들의 설명량을 나타내는 SMC비교에 의하면, 연합모델일 때 각각의 내재 변인들이 현재—자기모델에서 보다 더 많이 설 명되었다. 그리하여 가능적—자기 개념이 첨가되어 확장된 자기—개념이 정서 및 동기상태를 더 잘 설명 할 수 있다는 Markus와 Nurius의 주장이 SMC 또는 증다상관분석에서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겠다.

본 연구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가능적—자기 개념의 주요 가치는 정서 및 동기 상태에 대한 예언치 로서의 기능 이외에 미래행동을 위한 유인자로 작용한 다는 사실이다. Markus와 Ruvolo(1988)는 가능적—자기가 활동하는 자기—개념(working self-concept)의 중요한 요인으로 수행을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예로 피험자에게 가능적—자기에 대한 가상적 조작 (imagery manipulation)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특정 과제에 대한 노력과 지구력에서 보다 우세하였다고 한 다. 이런 연구들에 의해 가능적 자기가 개인화된 목표 의 표상(personalized representation of goals)으로 표현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른 한 연구에서는 (Inglehart, Markus, Brown, & Moare, 1987), 가능적—자기가 특정 목표를 향한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하고 나아가 목표를 추구하는데 소요되는 정서적 힘을 제공 한다고 강조하므로써 가능적—자기가 어떻게 동기화 과정에 임하는가 하는 점을 밝혔다. 동기화 과정에 이 와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적—자기 개념은

참고문헌

특히 치료분야에 활용될 전망이 크게 있다. 기대된 가능성—자기(expected possible selves)와 두려운 가능성—자기(feared possible selves)간의 균형정도에 따라 내담자의 부조화된 사고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Oyserman & Markus, 1987) 가능성—자기에 대한 적극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서 호전에 대한 동기를 보다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된 모델이 지지받지 못했던 원인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다. 첫째, 가능성—자기를 재는 척도의 문제로 가능성—자기개념과 현재—자기개념을 충분히 독립적으로 구별해 측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척도의 문제는 가능성—자기개념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구성으로 확립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다. 둘째로는 피험자 특성에 관련된 표집분포상의 문제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계층의 학부 학생들이 피험자로 응했는데, 이들은 현재와 미래를 중년층이 구별하는 것 보다 덜 구별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년기의 특징이 현실과 미래를 뚜렷이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많은 가능성을 향해 전진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피험자의 특성이 본 연구에서 현재—자기와 가능성—자기를 더욱 구별 안하고 반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로는 자기—개념에 관한 수많은 종래의 연구들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설명적(explanatory) 차원의 연구라기 보다 기술적(descriptive) 차원의 평면연구들이기 때문에 공변량구조 모형 연구에서 요구하는 통로의 방향성을 엄밀하게 설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자기—개념 자체를 비롯하여 자기—개념과 관련된 많은 유사개념들이 서로 명확하게 변별되지 않고 중첩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위성을 배제하고 통로의 방향을 찾기란 현 시점에서 매우 난해한 문제다. 그러나 자기—개념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직면해야 할 과제이다. 사실 통로의 방향을 찾아내기가 그토록 애매한 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모델을 가정해 분석을 시도한 것은 파편적인 수 많은 자기—개념에 관련된 연구들을 체계화시켜 통합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한 발자욱이다.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78).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 344-358.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em, D. J.(1967). Self-perception: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cognitive dissonance phenomena. *Psychological Review*, 74, 183-200.
- Bem, D. J.(1972). Self-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vol.6). New York: Academic Press.
- Bentler, P., & Bonett, D.(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 Bower, G. H.(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Breckler, S. J., & Greenwald, A. G.(1986). Motivational facets of the self.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pp. 145-64). New York: Guilford.
- Canter, N., Markus, H., Niedenthal, P., & Nurius, P.(1986). On motivation and the self-concept. In R. M. Sorrentino & E. Y. Higgins(Eds.),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96-127). New York: Guilford press.
- Carver, c. S., & Scheier, M.(1982). Control theory: A useful conceptual framework for personality-social,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2, 111-135.
- Duval, C., & Wicklun, R. A.(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Fassinger, R. E.(1987).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 425-436.
- Fassinger, R. E.(1987). *The testing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women's career choice in two college*

- populations.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Greenwald, A. G.(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Greenwald, A. G., & Pratkanis, A.R.(1984). The self. In R.S.Wyer & T.K.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pp.129-178). Hillsdale, NJ: Erlbaum.
- Heider,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iggins, E. Y., Strauman,T.& Klein, R.(1986). *Standards and the process of self evaluation: Multiple affects from multiple stages*. See Sorrentino & Higgins, pp. 23-63.
- Hoffman, M. L.(1986). Affect, cognition, and motivation. In R.M. Sorrentino, & E.T.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John Wiley & sons: Guilford Press.
- Ickes, W. J., Wicklund, R. A., & Ferris, C. B.(1973). Objective self-awareness and self-estee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202-219.
- Inglehart, M. R., Markus, H., Brown, D. R., & Moore, W.(1987). The impact of possible selves on academic achievement: a longitudinal analysis.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표
- Joreskog, K. G., & Sorbom, d.(1986). *LISREL VI: User's guide 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by maximum likelihood, instrumental variables, and least squares methods*. Mooresville, IN.: Scientific Software.
- Long, J. S.(198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age publications.
- Markus, H.(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2),63-78.
- Markus, H., & Sentsis, K.(1982).The self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1, Hillsdale, NJ: erlbaum.
- Markus, H.(1983). Self-knowledge: An expanded view. *Journal of personality*, 51, 543-565.
- Markus, H., & Nurius, P.(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954-969
- Markus, H., & Ruvolo, A.(1988). Possible selves: Personalized representations of goal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chigan.
- Norman, D. A.(1980). Twelve issues for cognitive science, In D. A. Norman(Ed.), *Perspectives on cognitive science: Talks from the La Jolla conference(pp.265-295)*. Hillsdale, NJ: Erlbaum.
- Oyserman, DK., & Markus, H.(1987). National Science Foundation Grant BNS 840-8057 후원
- Ross, M., & Conway, M.(1986). Remembering one's own past: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histories. Sen Sorrentino & Higgins, pp. 122-144.
- Simon. H. A.(1982). Comments on affective underpinnings of cognition. In M. S. Clark & S. T. Fiske(Eds., *Affect and cognition: The 17th Annual Carnegie Symposium on Cognition*) (pp.333-342). Hillsdale NJ: Erlbaum.
- Snyder, M., & Monson, T. C.(1975). Persons, situations, and the control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637-644.
- Snyder, M.(1979). Self-monitoring process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85-128.
- Sorrentino, R. M., & Higgins, E. T.(1986). Motivation and cognition: Warming up to synergism.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John Wiley & Sons: Guilford Press.
- Tesser, A.(1986). Some effects of self evaluation maintenance on cognition and action. See Sorrentino & Higgins, pp.435-464.
- Wicklund, R. A.(1975). Objective self-awarenes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8). New York: Academic Pres.
- Wicklund, R. A.(1975). The influences of self-awareness on human behavior. *American Scientist*, 67, 187-193.
- Zajonc, R. B.(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Zajonc, R. B.(1984). On the primacy of affect: *American
Psychologist*, 39 (2), 117-123.

원고 초 본 접수 : 1989. 5. 10

원고 수정본 접수 : 1989. 8. 2

The Influence of Possible Selves on Motivation : An Applic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ung-Sook Chang

The Ohio State University

The concept of possible selves, which provide the essential link between self-concept and motivation, has been developed by Markus and Nurius as the cognitive manifestation of goals, aspirations, motives, and fears. According to Markus and Nurius, possible selves are important because they function as incentives for future behavior and because they provide an evaluative and interpretive context for the current view of self. In this study, three hypothesized models were tested to verify the influence on several variables like affect, self-esteem, self-efficacy, personal-control and motivation by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odel of current-self shows good fitting indices while the other two models(the model of possible-self, the model of current-self, and possible selves) are failed to show good fitting indices.